

X. 전문인재의 육성

김도원 위원*

(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)

목 차

1. 육성방안	81
2. 인재육성의 조건	82

오늘날 원불교가 이 땅의 6대 종교로 발전한 것을 출가교무들의 전문인재 육성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.

더욱 소중한 것은 신명을 바친 출가교무님들의 혈심이 교단을 이끌어 왔고, 또 이끌어가고 있다.

이제 출가·재가 교도의 전문인재 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.

원음방송국의 개국, 청소년수련원 등에 전문인재가 더욱 필요하고 교화의 시대적 변화에 편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.

1. 육성방안

1. 발심한 인재를 전문인재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어 무엇보다 종교관과 사명감이 뚜렷해야 하고 책임감이 투철해야 한다.
2. 전문인재 육성에는 출가·재가의 전문인재 육성이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다. 그 것은 교단의 시대조류에 편승하고자 하는 기대 때문이다.

* 김도원 위원 : 원기 84~85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, 양산교당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.

3. 전문인력의 육성 = 경제적 뒷받침 유한책임 = 무한책임 공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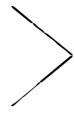
재가 전문인력육성에 대하여는 교단에 기여도를 살펴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주어 일하게 해야 한다. 많은 인재육성도 시급한 일이지만 인재관리도 중요한 문제이다.

전무출신의 인재육성 - 기술성, 포용성

거진출진의 인재육성 - 경제성, 전문성

2. 인재육성의 조건

- 추진력이 뛰어나야 한다.
- 연구력이 뛰어나야 한다.
- 위유내강형의 친화력이 있어야 한다.



창조적 인간육성

예) 교단에 기여했던 재가교도와 전무출신의 다툼,

10년 동안 화해 못하고 반목대립 갈등

→ · 재가 교도의 교단기여도 저하

· 현실과 미래가 불투명한 재가교도관리의 실상과 허상